



명지의료재단, 전북도서울장학숙에 진단키트 200개 후원

명지의료재단 이왕준 이사장은 지난 18일 서울시 방배동에 소재한 전북도서울장학숙(관장 정종복)에 입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자가진단키트 200개를 후원했다.

이왕준 이사장은 전주출신 전문의료인으로 신종플루 및 메르스 퇴치에 기여했으며 코로나19 관련 K방역의 선두주자로서 국제병원연맹·아시아병원경영연맹·질병관리본부 및 다수의 국가에 코로나19 대응시스템을 전수했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1년 자랑스런 전북인상을 수상했으며, 현재 경기북부 전북도민회의 회장으로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유효상 기자

완주군, 올해 완주군민대상 7개 분야 후보자 접수

완주군이 향토의 명예를 드높이고 지역사회의 안정과 발전에 크게 기여한 군민에게 수여하는 '완주군민대상' 후보자를 접수받는다.

21일 완주군은 내달 18일까지 문화교육, 나눔봉사, 경제, 애향 효열, 체육, 농림축수산 등 총 7개 분야에서 완주군민대상 후보자를 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각 분야에서 뛰어난 활동으로 국내외에 명예를 드높이거나 완주군의 위상을 빛내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여 널리 귀감이 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추천 가능하다.

후보자 자격은 완주군에 등록기준지를 두고 있거나 공고일 현재 3년 이상 완주군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혹은 완주군 관내 기관·단체·기업체 등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 이 있거나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군민대상 수상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군민은 추천대상자를 통해 군 행정지원과나 읍·면사무소로 추천서, 공적조서, 공적증명서 및 증빙자료, 사진 등을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후보자는 군민대상 선정 심사위원회를 통해 최종 결정되며, 시상식은 제77회 완주군민의 날에 진행할 예정이다. /완주=이종복 기자

고창군가족센터, 비대면 초·중등 학부모교육 진행

고창군가족센터(센터장 대원스님)가 지난 19일 고창군 초·중등 학부모를 온라인으로 초청해 자녀의 학교생활을 안내했다.

이날 학부모교육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부모교육으로 나눠 진행됐다. 초등 학부모교육은 고창초 김미진 교사가 맡았다.

새내기 학부모를 위해 '슬기로운 1학년 생활'이라는 주제로 입학초기 적응활동부터 학교생활 안내와 수업활동, 방학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방과후 교실 등 내 자녀의 초등학교 생활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됐다.

중학교 교육은 자유중학교 최이수 교사가 중학교 1학년의 자유학년제와 학교생활에 대한 교육으로 중학교 학부모의 궁금증을 해결했다.

대원 센터장은 "올바른 교육관을 정립하고 자녀를 이해할 수 있는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앞으로도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백만천사 7호 됐다

호성만수성당 아동 26명, 전주사랑'에 140만원 기부

전주시북지재단 '전주사랑' (이사장 이병관)은 호성만수성당 주일학교 아동 26명이 140여만 원을 기부해 재단에서 부여하는 백만천사 7호 됐다"고 21일 밝혔다.

호성만수성당 주일학교 아동들은 지난해 성당 주일학교 활동 등으로 달란트 금액 70만 원을 모았으며, 연규영 호성만수성당 신부가 70만 원의 매칭금을 더해 140만 원을 적립했다.

아동들은 이 금액을 밥 굶는 어려운 친구들을 위한 전주시 암매의암상 사업을 위해 기부하기로 결정했다.

연규영 호성만수성당 신부는 "주일학교 아동들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한해 동안 열심히 모아 기부할 곳도 스스로 결정했다"면서 "우리 아이들이 어려운 이웃을 돌아볼 줄 알고, 생활 속에서 나눔을 실천할 줄 아는 어른으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백만천사'는 1년에 100만 원 이상을 기부하는 전주시북지재단 '전주사랑'의 프로그램으로 자선민의



특별한 사연이 담긴 기부 단체 회원들의 함께하는 기부로도 참여가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재단 누리집(www.jwforum)을 참고하거나 전화(063-281-0080)로 문의하면 된다. /김윤상 기자

한국 유학생 스카우트, 세계잼버리 개최지 부안 홍보 집중

지난 19일부터 20일까지 한국에서 유학하고 있는 외국인 스카우트 5명이 2023 새만금 제2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이하 잼버리)가 열리는 부안을 찾았다.

이번에 부안을 찾은 외국인 스카우트들은 부안군과 세계잼버리 조직위가 공동으로 초청해 부안에 있는 즐포생태공원 청자박물관, 영삼테마파크, 변산해수욕장, 내소사 등지를 체험하며 세계잼버리 개최지 부안을 알리는데 주력했다.

청자박물관에서는 부안의 고려청자를 직접 빚음으로써 청자의 고장 부안을 알리고 세계잼버리 시 잼버리에 참가하는 대원들의 체험활동으로 활용 가능함을 엿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특히 다양한 영화와 드라마의 세트장으로 활용된 부안 영삼테마파크에서는 외국인 스카우트들이 엄청난 관심을 보여 화제가 되었다.

또한 내소사에서 다도체험을 통해 심신을 수련하는 자리도 가져 부안에 많은 체험거리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부안군 관계자는 "이번에 초청한 한국 유학생 스카우트들이 부안의 다양한 문화관광 체험을 통해 세계잼버리 개최



지 부안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으며, 앞으로도 많은 스카우트들이 부안을 찾도록 해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부안을 찾은 한국 유학생 스카우트들의 체험은 영상에 담겨 3월에 유튜브 등을 통해 세계로 선보일 예정이다. /부안=김석진 기자

익산시 여성회관, 상반기 수강생 모집

익산시는 시민들의 역량 강화와 코로나9로 지친 일상 회복을 위해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

익산시 여성회관은 2022년 상반기 여성회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21일부터 선착순으로 수강생을 모집한다.

상반기 강좌는 다음 달 7일부터 총 24개 과목(ITQ한글, 한자지도사, 캘리그래피지도사, 생활영어, 프랑스사주, 나만의 리폼 등)이 6월 24일까지 4개월 동안 운영되며, 직장인을 위한 생활일보어 및 동영상편집, 볼룸댄스 등의 이근반 강좌도 모집한다.

시는 올 상반기 수강 정원을 축소 운영하고, 감염예방을 위하여 수업 중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및 교육생들이 집중

되지 않도록 요일별·시간별로 분산 배치할 계획이다.

교육 신청은 익산시 거주자(강좌에 따라 양성반 포함)이며 수강료는 40,000원(1만원/1개월 4주 기준)이며 재료비는 별도이다. 단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자, 한부모가정은 관련 증명서를 제출하면 수강료가 무료이다.

시 관계자는 "여성회관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시민의 취·창업 능력 향상과 길어지는 코로나 현실에서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청 홈페이지(통합예약·교육·강좌 신청)를 참조하거나 여성회관 전화 063-4988, 4986으로 문의하면 된다. /익산=이득훈 기자



예담엔지니어링, 장애인 교회에 태양광 지원

전주지역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앞장서온 (주)예담엔지니어링(대표 김장관)이 장애인 이용시설의 냉·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태양광시설을 후원했다.

21일 전주시에 따르면 (주)예담엔지니어링은 노후화된 냉난방 시설로 전기요금과 과다 발생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주예담엔지니어링교회(담임목사 이진수)에 1400만 원 상당의 태양광 시설을 설치했다.

전주예담엔지니어링은 지난 1971년 전주능인교회라는 이름으로 설립된 교회로 이진수 담임목사를 포함해 교인 100여 명은 모두 농어촌이다.

이번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용량은 9kW로 1년간 총 1만 2150kWh의 전력 생산이 가능하며, 연간 약 100만 원의 전기료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담엔지니어링은 태양광 설치로 인해 전기료 절감에 따른 교회운영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이진수 전주예담엔지니어링 교회 담임목사는 "형각장애인을 위해 평소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전주시와 (주)예담엔지니어링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면서 "교인들이 따뜻한 공간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김장관 (주)예담엔지니어링 대표는 "태양광 설치를 통해 농어촌들이 요금 걱정 없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게 돼서 기쁘다"며 "앞으로 장애인들을 위한 더 많은 기부활동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조촌동 애향회 '사랑의 쌀 모으기'로 나눔 실천

전주시 조촌동(동장 이강환) 애향회(회장 서길석)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올해 2월 중순까지 조촌동주민센터에 '사랑의 쌀 모으기' 창구를 개설,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주민 누구나든지 동참할 수 있도록 '사랑의 쌀 모으기' 행사를 전개해 왔다.

조촌동 애향회는 21일 동 주민센터와 함께 그동안 모아진 백미 100포(10kg)를 관내 지역이동센터 및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계층에게 전달했다.

서길석 애향회장은 "이번 행사는 애향회가 주최한 행사이지만, 애향회 회원들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까지 동참해 주셔서 더 뜻 깊었다"며 "한 톨 한 톨 모아진 따뜻한 마음이 코로나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